

“데이터 기반 좋은 품질과 나눔으로 저가 커피 시장서 승부”

배경한 유니컵커피 대표

데이터 경영·감성 브랜드 리더 자부 로스팅·유통 등 독자적 공급망 구축 부산 프리미엄 커피, 세계 시장 겨냥 씬씬이가 바른기업 통해 공헌활동도



“치열한 저가 커피 시장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오직 ‘데이터 기반의 좋은 품질’과 ‘나눔의 가치’입니다. 유니컵커피의 커피 한 잔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견고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오피스 상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입지를 다지고 있는 ‘유니컵커피’ 배경한 대표는 자신을 “데이터로 경영하는 감성 브랜드 리더”라고 소개했다. MZ세대 젊은 경영자인 배 대표는 커피 격전지 부산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프리미엄 품질을 담아낸다는 목표 아래, 단순한 매장 운영을 넘어 로스팅과 유통 시스템까지 아우르는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며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창업 초기부터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와 ‘나눔 경영’을 선언하고 젊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나가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품질의 균일성과 공급망의 안정성이 시장 생존의 핵심임을 깨달았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고객에게 언제나 변

안정적인 품질 관리와 효율적인 비용 구조를 모두 확보하며, ‘프리미엄 경험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는 핵심 가치를 완성했다.

배 대표가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AI 기반의 디지털 전환(DX)’이다. 유니컵커피는 디자인 기획, 마케팅 전략 수립, 상권 분석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자체 개발한 상권 분석 플랫폼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지 적합성을 판단하며, 향후에는 매장별 매출 추이, 시간대별 인기 메뉴 변화, 재고 회전율 등을 종합한 자동 경영 리포트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도입할 예정이다.

“AI는 단순히 업무 효율을 높이는 도구를 넘어섭니다. 이는 경영자의 감각과 반대편 데이터를 결합해 ‘데이터로 움직이는 미래형 프랜차이즈 분사’를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비전입니다.”

젊은 나이에 분사를 이끌고 있지만, 그는 경영의 책임을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구조’에서 찾는다. “제가 사업 초기에 받았던 많은 도움을 이제는 사회에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기부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동행의 과정이니까요.”

유니컵커피는 이미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와 뜻을 모아 나눔 활동에 참여하는 ‘씬씬이가 바른기업’으로 활동 중이다. 더 나아가 향후 모든 가맹점에 대한적십자사의 ‘씬씬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에 동참해 고객들이 유니컵커피를 마시는 소비 경험 자체가 자연스럽게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행동이 되도록 확장 계획이다. 유니컵커피가 부산에서 성장한 만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중요하게 여기는 배 대표는 대한적십자사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과 직접 연결되는 견고한 사회공헌 체계를 마련했다.

그는 커피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는 부산에 대한 강한 자부심으로 드러냈다. “부산은 단순한 경쟁 시장이 아니라, 커피 산업이 하나의 문화와 예술로 깊이 자리 잡은 특별한 곳입니다. 영도와 서면 등지에서 이미 활발한 축제와 산업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죠. 유니컵커피 역시 이러한 흐름을 타고 ‘부산에서 탄생해 전국으로 뻗어 나가는 성공적인 브랜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배 대표는 유니컵커피의 다음 도약 무대로 “세계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을 전략적 교두보로 삼아,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글로벌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K컬처, K푸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K커피’라는 새로운 한류 트렌드를 주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는 후배 창업가들에게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브랜드의 힘은 혼자 잘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중과의 공감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커피 한 잔을 매개로 세상이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 것이야말로 유니컵커피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나눔 경영’이며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변현철 기자 byunhc@busan.com



동명대 ‘지리산 등반 및 환경정화 활동’ 동명대교사학과는 지난 11~12일 2학년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국토 수호의 자를 고취하기 위한 ‘지리산 등반 및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성금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광역시회(회장 추한권)는 지난 10일 중구(구청장 최진봉)에 동절기 저소득 가정 대상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동아대, 에너지 테크 업무협약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에이스엔지니어링은 지난 6일 에너지테크 특화 분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 체결 및 첨단 R&D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사직1동 도시락 나눔 부산 동래구 사직1동 바르게살기 운동위원회(위원장 이종근)는 지난 12일 관내 저소득 어르신 10세대를 대상으로 도시락과 생필품을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국립한국해양대, 지역사회 책 나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도서관은 지난달 13~30일 위치 않는 책을 기증받아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하는 ‘2025 지역사회 책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전 생애주기형 문화교육 프로그램 국립해양박물관 국내 최초 운영

국립해양박물관(관장 김중혜)은 ‘2025년 하반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전 생애주기형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기획·운영하며, 장애와 비장애를 아우르는 포용적 문화 확산의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 문화교육 프로그램은 박물관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꾸준히 이어온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확장해 장애 아동부터 청년, 장년, 노년까지 전 세대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송현수 기자 songh@

부산 범일동 ‘퀸즈이즈카운티’ 모델하우스 성황 속 개관



대성문과 리즈건설, 이채건설이 부산 동구 범일동에 선보이는 ‘퀸즈이즈카운티’ 모델하우스가 18일 정식 오픈하며 본격 분양에 나섰다.

이날 오픈식에는 부산MBC 최병환 사장, B NK저축은행 김영문 대표, BNK부산은행 광태길 센터장, 대신증권 김봉진 상무, 부산일보 김수진 이사, 동원저축은행 윤성호 부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범일동 일대 주거환경 개선과 미래가치에 대해 높은 기대를 나타냈다.

퀸즈이즈카운티 모델하우스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동 878-5번지에 마련됐으며, 오

폰과 동시에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방문이 이어지며 뜨거운 관심을 확인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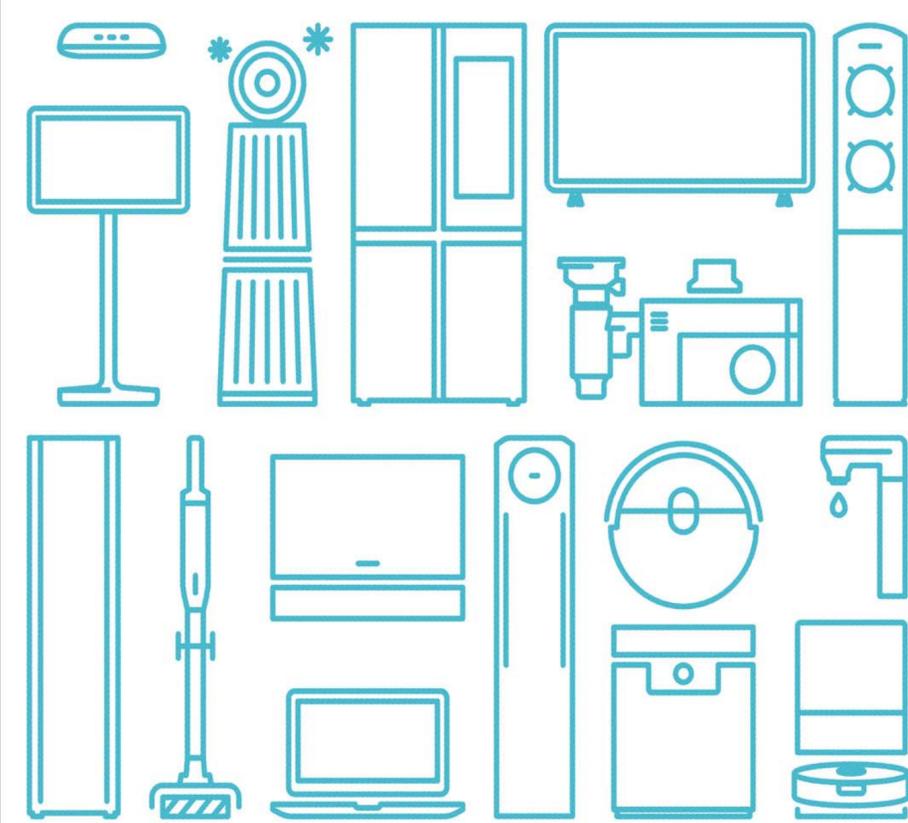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9층 규모로 아파트 268세대와 오피스텔 72실 총 340세대로 구성된다. 아파트는 △84㎡ 134세대 △76㎡ 27세대 △62㎡ 53세대 △61㎡ 54세대 총 268세대로 구성됐으며, 오피스텔은 △75㎡ 48실 △59㎡ 24실 총 72실로 준비해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한다. 피트니스 룸, 요가룸, 워킹라운지, 컨퍼런스룸 등 커뮤니티 시설도 풍부하게 마련돼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전망이다. 특히 퀸즈이즈카운티는 문세권(부산MBC, 부산시민회관), 백세권(현대백화점-커넥트현대), 공세권(인근 공원·53보급장 공원과 추진), 해세권(해양수산부 이전) 4대 세권을 모두 갖춘 복합 입지로 주거 퀄리티가 완성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경희 기자 miso@

부고

△천종기 씨 18일 별세. 영철(부산일보 논설위원)·영경·영락(울산여객 사원) 씨 부친, 차동일(폼바로전략의원 원장) 씨 방부. 울산중앙병원장례식장 로얄실. 발인 20일 오전 6시 30분. 장지 울산 울주군 선영. 052-260-1006.
△김중수 씨 18일 별세. 추양례 씨 배우자. 민수(부산시 정부기획보좌관)·길수 씨 부친. 부산의료원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0일 오전 5시 30분. 장지 양산 석계공원묘원. 051-607-2990.



LG HelloVision Hello rental

일시불로 안샀다 헬로렌탈로 잘샀다!

요즘 잘 나가는 가전! 최저가로 잘 사는 방법!
부담 없이 최대 60개월까지, 쓰면서 나눠주세요.

상담문의 1855-1082
rental.lghellovision.net 에서 원하는 가전을 찾아보세요

